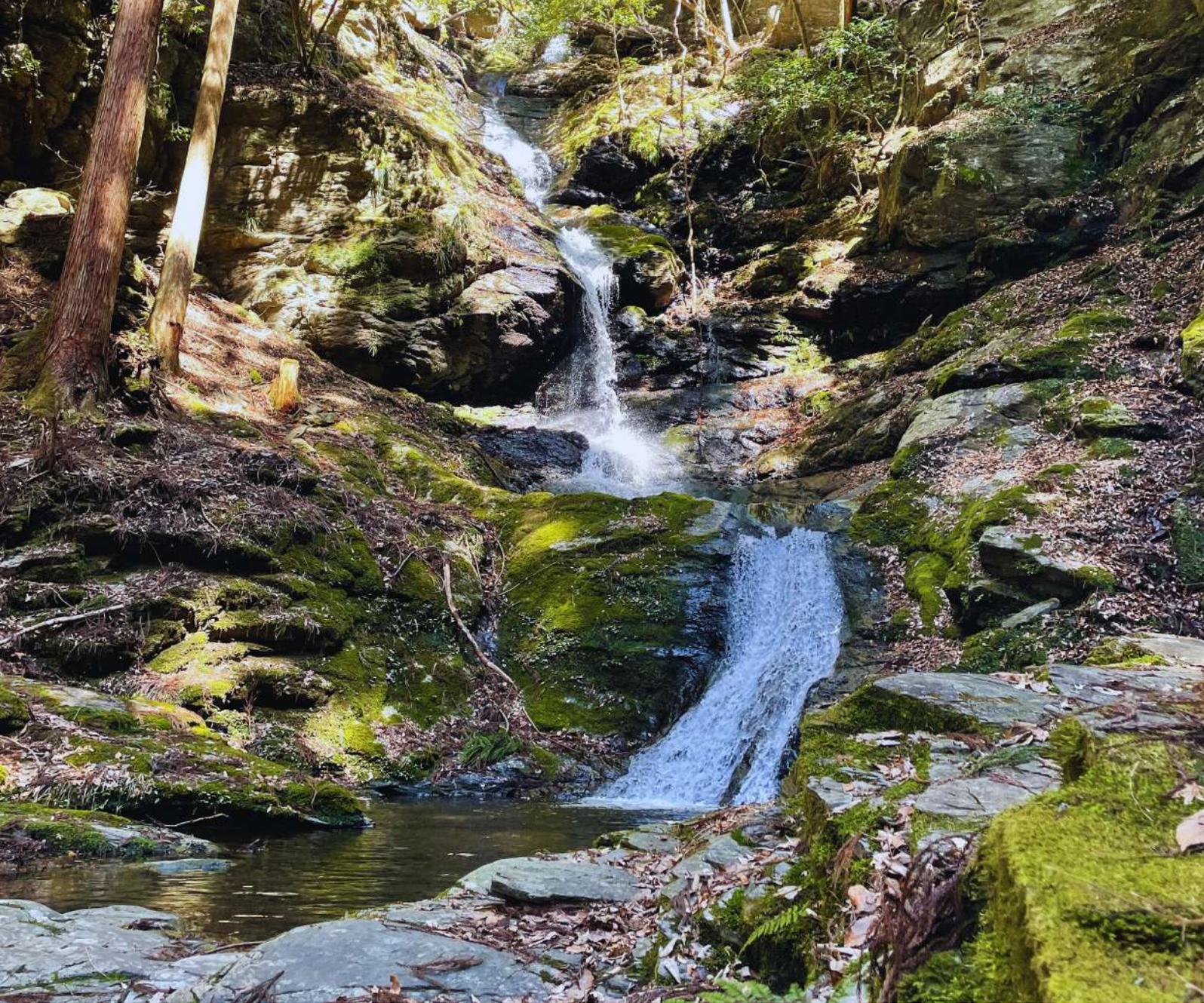


# 나노라 히가시요시노무라

제18호 | 2023년 6월

東吉野村



나나타키야쓰보 · 유메부치 · 히무카시 폭포 ..... 1  
후루사토무라 · 야하타온천 .....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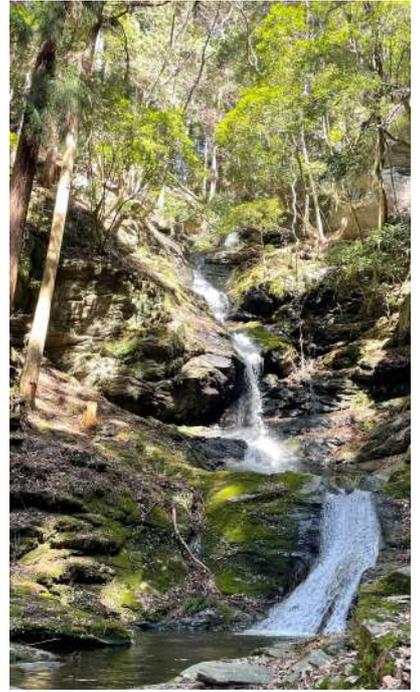


일본 늑대 동상 · 히가시요시노무라 민속자료관... 3  
키노코노 야카타 ..... 4

# 히가시요시노의 「水」



이번 나노라는 나라현 동부에 위치한 히가시요시노무라를 취재하였습니다. 히가시요시노무라의 주민분들에게 마을의 장점을 여쭙어보니 '물이 깨끗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히가시요시노무라를 산책해보니, 듣던 대로 매력적인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물」을 주제로 하여 자연이 넘치는 히가시요시노무라의 매력을 나노라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 나나타키야쓰보(七滝八壺)

히가시요시노무라는 폭포가 많은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것이 나나타키야쓰보입니다. 시고강에 있는 현수교를 건너면 바로 첫번째 폭포가 눈에 들어옵니다. 폭포의 물은 보기만 해도 매우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가파른 언덕길을 조금 오르자, 연속해서 폭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연이 만들어낸 이 멋진 경치에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요시노 스키(요시노 삼나무)에 둘러싸여 있는 나나타키야쓰보 일대는 그 규모로 일본 삼대 인공 미림으로 꼽혔을 뿐 만 아니라, 그 물의 깨끗함과 아름다움을 인정받아 2008년 일본 환경부가 선정한 '헤이세이 명수 100선'에 선정되었습니다.

안내를 맡아주신 히가시요시노무라 촌사무소 지역진흥과의 이노우에씨의 말씀에 의하면 폭포가 7개이므로 용소도 7개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명한 사자성어인 '칠전팔기'에 빗대어서 '七滝八壺'(나나타키야쓰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맑은 장소에서 심호흡을 하니 기운이 나면서 마음이 치유되는듯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방문해 보세요.

## 유메부치(夢淵)

유메부치는 물의 여신 미즈하노노카미를 모시는 니우카와카미신사의 정적, 삼엄, 신비의 기운이 가득한 영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카미강, 시고강, 히우라강의 3개 강이 합류하는 곳에 짙푸른 색의 깊은 연못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진무 천황과의 연이 있습니다. 『일본서기』에는 진무 천황이 전승 기원을 위해 니우카와카미강을 방문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성한 술이 담긴 병을 이 강에 가라앉혀 술에 취한 물고기가 물 위로 떠오르면 승리한다는 점을 보고 방문했다는 전승이 있는 연못입니다. 이 전설은 나노라 제 16호 가시하라 신궁 기사에서도 소개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황색으로 칠해진 다리에서 경치를 즐기는 것도 매력적이지만 신비로운 느낌을 주는 짙푸른색 연못 근처까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여름 시즌에는 유메부치에서 물놀이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 히무카시 폭포(東の滝)

유메부치 근처의 히우라강이 다카미강으로 합류하는 지점에는 두 갈래로 떨어지는 히무카시 폭포가 있습니다. 예전 요시노 별궁의 동쪽에 있어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히무카시 폭포 앞에는 금줄이 쳐져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사실 이 히무카시 폭포에는 용의 신이 산다고 해서 일명 '용의신 폭포'라고도 불립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용은 불의 동물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용이 물에 산다는 것은 저에겐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참고로 니우카와카미신사에서는 참배료 300엔을 내면 부정을 개운으로 이끌어 주는 용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속의 소원을 이 구슬에 담고, 구멍에 숨을 세 번 불어 폭포에 던지면 용의 신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니 이곳에 방문하셨을 때는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후루사토무라(ふるさと村)

이어서 소개할 곳은 후루사토무라입니다. 이곳은 캠프장과 숙박시설을 시작으로, 식당, 온천, 계곡 등 히가시요시노무라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만끽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후루사토무라 시설장 이치카와님의 말에 의하면 이 시설은 1989년에 오픈한 복합형 숙박시설입니다. 그 후에 야하타온천이 생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쉼터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지터센터는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는 야하타초등학교 건물을 개조한 것으로, 내부에는 정취가 느껴지는 식당이 있고 히가시요시노무라의 관광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센터 옆에 있는 후루사토 회관은 가족단위나 단체에게 추천하는 숙박시설입니다.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고 공동 휴게실에서도 즐겁게 교류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캠프장이 시고강변을 따라서 위치해 있기 때문에 캠핑하기에도 좋습니다. 여름에 친구들과 모여 바비큐와 물놀이를 하고 밤에는 불꽃놀이도 하는, 제가 꿈꾸던 여름휴가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후루사토무라에서는 봄에는 산벚나무, 여름에는 시원한 계곡물,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상고대 등, 사계절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근처에는 '나타키야쓰보'와 '우도메도 폭포' 등 유명한 폭포와, 이세쓰지산이나 쿠니미산 등 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하이킹객이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계곡과 짙은 녹색에 둘러싸인 여유로운 힐링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시설입니다. 꼭 한번 둘러보세요.



## 야하타온천(야하타温泉)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곳은 야하타 온천입니다. 1995년에 오픈한 야하타 온천은 히가시요시노무라 최초의 공설온천입니다. 온천욕을 하면서 계곡과 아름다운 산들을 바라볼 수 있어 피로를 풀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산에는 벚꽃나무와 단풍나무가 있어서 계절에 따라 다른 풍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온천에는 나무 향기가 좋은 고대 노송나무탕과, 제스스파가 가능한 천연 화강암탕이 있습니다. 이치카와씨가 자랑하는 고대 노송나무탕으로, 편백나무 중에서도 귀한 고대 편백나무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고대 편백나무란 수령 천수백 년을 넘는 거목으로, 그 나무는 정유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혈액순환과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삼림욕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남탕과 여탕이 바뀌므로, 일주일에 두 번 방문한다면 양쪽을 모두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천연 화강암탕에 들어가 보았는데, 온천수는 약알칼리성을 띠고 있어 피부에 잘 스며드는듯했습니다. 계곡의 경치를 즐기면서 온천욕을 하니 정말 편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천에서 나가고 싶지 않을 만큼 기분이 좋았습니다.

계곡과 폭포, 온천 등 히가시요시노무라의 웅장한 대자연을 마음껏 접할 수 있어서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물이 깨끗한 히가시요시노무라의 대자연을 만끽해 보시겠어요?

기엠 로드



## 산골마을의 매력을 여행하다 : 히가시요시노무라

히가시요시노무라는 다카미강 등 아름답고 맑은 물과 다카미산을 비롯한 깊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자연이 넘치는 마을입니다. 지금부터는 「산」을 주제로 하여 자연이 풍요로운 히가시요시노무라의 매력과 옛 산에서의 생활을 나노라 독자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나라의 산골 마을을 만끽하며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

## 산의 생물을 탐색하다 : 일본 늑대 동상

히가시요시노무라에서는 어떤 생물을 볼 수 있을까요? 다카미강 안을 들여다보면 민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고,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면 산새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나, 한때 이 땅의 왕이었던 존재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히가시요시노무라에 살고 있던 일본 늑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가시요시노무라는 일본 늑대의 마지막 포획지로 유명합니다. 히가시요시노 촌사무소의 설명에 따르면 1899년 런던 동물학 협회 회장이 동아시아 동물학 탐사를 기획했고, 1904년에 미국 스탠퍼드 대학을 막 졸업한 말콤 플레이페어 앤더슨씨가 탐사원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혼슈 중앙부와 도호쿠, 홋카이도에서의 조사 후 같은 해 12월 29일 나고야에 도착했지만, 쥐 이외의 동물은 좀처럼 잡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 탐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라에 도착한 후 많은 사냥이 행해지고 있다는 정보가 있던 와시키구치(현재의 히가시요시노무라 오가와)에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머문지 열흘 만에 마을 사람 세 명이 일본 늑대의 사체를 앤더슨씨에게 가져와 협상하여 8엔 50전(현재 가격으로 약 16만 엔)에 팔았다고 합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이 일본 늑대가 일본에서 포획된 마지막 한 마리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포획된 일본 늑대는 젊은 수컷으로 현재 런던 자연박물관에 두개골과 모피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크기는 머리와 몸통이 91.4cm, 꼬리가 34.0cm, 귀가 8.6cm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앤더슨씨는 히가시요시노무라에 머무는 동안 멧돼지, 사슴, 시로속 등도 수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과거 히가시요시노무라의 산에서 쫓던 일본 늑대가 아직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에 희미한 희망을 걸고, 자연을 널리 사랑하고 보호하기를 바라는 마을의 마음을 담은 상징으로 1987년 나라교육대학 교수 구보타 다다카즈씨가 제작한 청동상이 마을에 설치되었습니다. 동상을 가까이에서 보면 마치 일본 늑대가 지금도 쫓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과 함께 살아갔던 일본 늑대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히가시요시노무라 일본 늑대상을 한번 둘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 산골의 역사를 접하다 : 히가시요시노무라 민속자료관

다음으로 향한 곳은 히가시요시노무라 민속자료관입니다. 1874년에 지어진 옛 오가와 제 2초등학교의 교사를 개조하여 만들어졌으며, 초등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아기자기한 타일 벽의 음수대와, 훌륭한 목재 건물이 인상에 남습니다. 이곳은 히가시요시노무라 주민들의 역사와 생활에 대해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시설입니다.

원래는 학교였기 때문에 옛날 교실을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총 4개의 전시구역(①히가시요시노무라의 풍토와 역사 ②입업 ③옛날의 생활 ④축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시품 중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멧돼입니다.



맷돌은 전통적인 떡 만들기에 사용하는 기계입니다. 두 명이서 조작하는 방식으로, 한 명이 왼쪽 페달을 힘껏 밟아 절굿공이를 올리고, 그 사이에 다른 한 사람이 가는 막대기로 떡 모양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한쪽이 페달을 놓으면 절굿공이가 떨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작업을 반복함으로 인해 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옛날 방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좀처럼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산 생활 그리고 일본 문화 속의 중요한 관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산골요리를 만끽하다 : 키노코노 야카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키노코노 야카타' 라는 버섯요리 전문점입니다. 외관을 보면 큰 버섯 간판이 눈에 들어와서, 버섯요리점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가게에 들어가니, 오마에 히로유키점장님이 활짝 웃는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먼저, 가게와 히가시요시노무라에의 생활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 1. 이 가게를 시작한 지 몇 년째이신가요? 왜 히가시요시노무라에서 가게를 시작하고자 하셨나요?

전 주인이 이곳에서 약 20년 정도 가게를 운영하셨고, 2대째인 저는 이 가게를 이은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현 출신인데, 전에는 히가시오사카에서 철도 관련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골생활과 버섯 재배에 관심이 많아서 전 주인에게 이 가게를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 2. 이곳에서는 몇 종류의 버섯을 취급하고 계시나요?

만가닥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검은 비늘버섯, 새송이버섯 등 약 10종류로, 모두 자가재배입니다.

### 3. 관광객이 많이 오나요? 제일 붐비는 계절은 언제인가요?

여러 나라에서 오십니다. 지금까지는 프랑스, 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많은 손님이 오셨고, 제일 붐비는 계절은 벚꽃이 피는 시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프랑스인 관광객이 왔었습니다.

### 4. 히가시요시노무라는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연이 풍부하고, 친절한 분들이 많은 곳입니다. 외국인이 이주해오는 경우도 많은데, 도어를 하는 미국인이나 호주에서 온 분도 있습니다.

### 5.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사람이 히가시요시노무라를 방문했을 때 이곳은 꼭 갔으면 한다, 이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히가시요시노무라의 역사, 특히 덴츄구미(天誅組)는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에도막부 말기의 지사였던 덴츄구미가 막부를 피해 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이 현재의 히가시요시노무라입니다. 마을에는 위령비도 세워져 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버섯전골 정식을 먹어보았습니다. 전골 정식에는 버섯밥과 세 가지의 절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골에는 만가닥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등 다양한 종류의 버섯이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고기나 두부 등의 속재료가 없어서 맛이 연하지는 않을까 생각했지만 오히려 풍부한 맛에 놀랐습니다. 저는 자취를 하면서 전골요리는 자주 만들고 있는데, 저도 한번 맛있는 버섯전골을 만들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손님과 마을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노포 키노코노 야카타. 점원분의 따뜻한 응대를 받으니 마치 친척집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르게 대화를 나누게 되는 공간이었습니다. 히가시요시노무라에 오실 때에는 꼭 키노코노 야카타를 방문하셔서, 이곳에서 밖에 맛볼 수 없는 맛있는 산의 선물을 만끽해 보세요.

